

# 광주시·전남도의의회 임시회 최소 인원만 참석

### 코로나 확산 차단...광주시의회 시청 9명·교육청 5명 제한 전남도의의회 도정질의 일정 10월로 연기...감염 차단·방역 주력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가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공식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경우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되고, 전남도의회는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기 위해 도정질의 일정을 늦추는 등 감염 차단과 방역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준(準) 3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2일과 10일 각각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는 시청은 9명, 교육청은 5명으로 참석 인

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으나, 이번 회기에는 국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국장급 이상 중에서도 시청에서는 시장과 부시장·2급·정책기획관·도시재생국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부교육감·국장·교육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다.

3~8일 상임위원회, 9일 예결위원회에는 해당 실·국장, 과장만 참석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실 전 손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임시회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3

단계로 격상하면 본회의를 연기하고 모든 회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도 절제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고 코로나 19로 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9월 예정된 도정 질문을 10월로 연기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애초 다음 달 회기 중 15~17일 진행 예정이던 집행부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10월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으려는 조치로 도의원들은 최근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기 중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자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본회의장은 집행부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무 부지사, 행정 부지사, 기획조정실장만 참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참석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집행부 담당 국장과 과장 등 필수 간부만 참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했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코로나 19 감염 차단과 방역 성공을 위해 의회 일정을 줄이거나 연기하기로 의원님들과 뜻을 모았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물나리 피해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AI데이터센터 안심구역 설치 협력

### 데이터 경제·AI산업 활성화 광주시-한국데이터진흥원 협약

광주시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3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용업 시장과 민기업 원장이 영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1993년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출범한 이후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시대를 선도해온 기관으로, 민간데이터 유통촉진, 데이터 비즈니스 도시 및 산업기반 마련, 데이터 혁신 인재 양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민간 데이터의 개발과 유통 활성화 지원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수집 및 활용기반 조성 ▲AI데이터센터의 안심구역 설치 협력 및 운영 지원 ▲AI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AI데이터 혁신인재 양성 등이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AI 관련 공동과제 발굴 등이다.

광주시는 데이터바우처, 데이터스토

어, 데이터 인력양성 및 데이터 품질인증 및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역량과 경험이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기업 원장은 "광주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향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광주시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데이터"라면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돼 큰 발전 동력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협약에 이어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전담기관이자 국가 과학기술 지식자원 활용 생태계 선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 및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

### 광주시, 범시민 운동 추진 정치권·사회단체 동참 유도

광주시가 방역당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가 확산 차단 등 방역에 힘쓰면서도 조기 종식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에는 예식업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예비 부부 피해 구제를 위한 상생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년 3월까지 최대 7개월간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에 협조하고 취소 요청 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30~40% 감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주예식협회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간 중 취소 때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위약금 없이 연기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매일 이어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료 인하, 긴급 의료 지원단 모집 등에 협조해주시길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 광주 공동체 전체가 위기 극복을 시민적 관심사로 삼아 연대하는 캠페인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엄격해진 청사 출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공공서의 출입이 엄격해지고 있다. 31일 오전 광주 북구청사 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청사로 들어가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 입구에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 이용섭 시장 "비대면 회의 효율적"

광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일부 행정 시스템을 비대면, 재택, 온라인 근무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상생과 안전의 휴먼시티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광주시정을 비대면, 재택근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시정은 대면방식의 구시대적 행정체계와 회의방식에 머물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진화된 영상의실을 만들고 공무원이 비대면 회의 등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시 직원들도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영상이나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며 "독일 시가총액 1위 회사인 SAP도 비대면 전환으로 매출이 1.5배 늘었다고 한다"며 선진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첫 비대면 업무 조치로 이날부터 각 부서마다 전체 인원의 30% 씩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태풍 '마이삭' 피해 없도록 철저 대비"

### 김영록 전남지사, 특별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1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 주재로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가진 상황판단회의에는 시장·군수를 비롯 도 실국장들이 함께 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9월 2일 오전 제주도 남해상을 지나 3일 새벽 부산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 중으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 지사는 "지난 8호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으나 도민들께서 잘 대처해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며 "이번 태풍 '마이삭'은 전국은 물론 전남에도 많은 피해를 줬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경로와 유사해 각별한 대비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태풍 '마이삭'의 이동경로가 2일 밤부터 3일 새벽사이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이동경로는 변할 수 있어 전라남도는 여수 인근에 상륙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현장 시설물 결박과 고정 조치 등 사전대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산사태, 축대 붕괴 우려지역, 해안저지대 등 주민 대상 긴급 재난문자·마을방송으로 사전 대피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 2차 피해 방지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및 출입통제 ▲담·저수지 저수율 조정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하진 범람·붕괴 없도록 조치 ▲사전 물고 확인 및 농업시설 고정·보강으로 농업피해 대비 ▲지붕·간판·화분 등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및 적치물 결속·결박 등 안전조치 이행 등을 사전 조치토록 특별 지시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상청 태풍예보에 따라 비상근무를 편성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